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도시 곳곳에서 경험하는 녹색 공간 '주머니 속의 정원' 프로젝트

문화·관광 - 삭막해진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베란다 꾸미기 대회' 개최

사회·복지 - 물가 부담 완화하고 자선의 의미 되새기는 파용 라흐마

환경·안전 -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근린공원 시설 개선

- 지하는 하수처리장, 지상은 공원 건설

도시계획·주택 - '델리 2047' 도시계획 관련 프로젝트 진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도시 곳곳에서 경험하는 녹색 공간 ‘주머니 속의 정원’ 프로젝트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도시 구석구석을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주머니 속의 정원(Pocket Garden)’ 프로젝트를 런칭. 시민이 균형 잡힌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공원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등 총 68개의 프로젝트를 올 한 해 동안 시행할 예정

주머니 속의 정원 프로젝트 개요

- 시민이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 녹색 정원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느끼도록 도시 곳곳에 친환경적 경험의 장을 마련한 피렌체시의 프로젝트
- 2023년 한 해 동안 6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
 - 기존 공원과 정원 재정비, 학교와 공공기관 건물에 친환경 담장 설치, 도시에 약 1만 그루의 나무 가꾸기, 도시에서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정원’ 세 군데 설치 등
 - 피렌체시 역사상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녹색 도시 프로젝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도시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유럽연합이 금전적 지원
 - 1,800만 유로(약 250억 원)를 지원받음
- 올해 피렌체시가 가장 주력하는 프로젝트
 -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 심각한 환경 이슈에 대한 도시의 응답
 - 자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공공 녹색 공간 확장
 - 피렌체시에 600만 유로(약 84억 원)를 투자하여 기존의 대규모 공원과 정원을 개선하고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등 총체적 녹색 공간 확장 프로젝트 시행
 - 피렌체에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스트로찌(Strozzi) 가문의 빌라가 현재 시민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 75만 유로(약 10억 원)를 투입하여 통로 재포장, 조명 정비, 낮은 난간 교체 등을 진행, 명성에 걸맞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 시키려 함

- 산책 공간으로 유명한 공원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반려견 식수대 설치 등에 42만 유로(약 6억 원) 투자
- 어린이를 위한 농장 설치에 20만 유로(약 3억 원) 투자
- 다음 세대 자연환경 교육을 위한 화초 정원, 놀이 공간 조성에 약 45만 유로(약 6억 원) 투입
- 친환경적 벽 조성으로 도시 조경화
 -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건물의 벽을 녹지화하는 프로젝트 추진
 - 식물이나 색상을 이용한 친환경적 접근뿐 아니라 기술 부분과 접목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
- 수목 유산 가꾸어 도시 조경화
 - 팬데믹 시기를 장기간 거치며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환경에 관한 욕구를 인식
 - 이에 따라 전통 수목이나 오래된 나무가 즐비한 거리 등 도시 내 자연 유산을 보호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남
 - 피렌체는 총 2,300만 유로(약 320억 원)를 투입하여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 나무 심기 진행
 - 오랫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은 역사 공원인 카시네(Cascine) 공원에 전통 나무 50만 그루를 심기로 결정
 - 도시 내의 전통 거리와 역사 광장, 궁전 등이 포함
- 공공 정원 개선
 - 본래 시민의 광장이었지만 사진 촬영이 목적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미켈란젤로 광장을 피렌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정비
 - 90만 유로(약 12억 원)를 투자하여 입구를 개조하고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반려견을 위한 울타리 설치
 -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작은 공간을 공공정원으로 재정비
 - 60만 유로(약 8억 원)를 투자하여 나무, 화초, 꽃을 심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 ‘조용한 녹색 공간’을 위한 음향 시설 재정비
 - 도시 내 공원은 항상 소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 피렌체의 대표적인 대규모 공원 세 곳에 다양한 관목과 나무를 심어 도시 소음 최소화 공간으로 탈바꿈

-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시의 노력

정책 평가와 의의

- 시민은 녹색 공간을 통해 도시와 더욱 연결되고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
 - 피렌체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하지만 항상 시민을 위한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
-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야외 참여 수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학생이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 평가가 이어짐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il-2023-anno-del-verde-fiorenze>

<https://www.controradio.it/piano-del-verde-in-arrivo-18-milioni-per-il-2023/>

<https://www.lamartinelladifiorenze.it/nardella-il-2023-sara-lanno-del-verde-a-fiorenze/>

<https://www.dire.it/29-11-2022/841725-a-fiorenze-10-000-alberi-in-dieci-anni-e-il-bosco-di-nardella/>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삭막해진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베란다 꾸미기 대회’ 개최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삭막해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피렌체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베란다 꾸미기 대회 ‘피오리 아 피오렌자’(Fiori a Fiorenza)를 개최

배경과 목적

- 피오리 아 피오렌자의 의미
 - 피오리(Fiori)는 이탈리아어로 꽃을 뜻하고, 피오렌자(Fiorenza)는 중세시대에 불리던 피렌체의 도시 명칭. 즉 ‘피오리 아 피오렌자’는 ‘피렌체의 꽃’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식물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를 내포함
- 시민에게 녹색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취지
 -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황량해진 도시 내 환경을 재정비하려는 시의 노력
 -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시민의 생기발랄함을 되찾아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피오리 아 피오렌자의 내용
 - 개인 집이나 회사의 베란다 공간을 화초와 꽃 등 자연 식물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장려하는 콘테스트. 직접 가꾼 공간 사진을 찍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상을 수여
 - 피렌체시 주관하에 피렌체시가 속한 토스카나주의 원예학협회(Società Toscana di Orticoltura)와 협업하여 대회 진행
- 참여 방법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며 공간의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
 - 피렌체시의 5구역을 나누어서 한 구역당 2명의 수상자를 선정, 총 10명 수상

- 대회 참여 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식물로 가꾼 자신의 공간을 사진 찍어 최대 3장을 이메일로 전송
- 매년 4월에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식물이 생동하는 기간에 베란다를 꾸준히 가꾸도록 장려
- 심사 기준과 상금
 - 토스카나주 원예학협회 소속 전문가의 심사 점수 60%와 인터넷 통한 일반 시민 점수 40%로 결정
 - 자연 식물로 둘러싸인 환경을 장려하고 녹색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화, 마른 식물, 내부 장식 위해 변형된 식물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는 조화로움(15), 독창성(15), 유용성(15), 혁신성(15)의 기준으로 심사
 - 피렌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이더라도 주변 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
 -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식물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염두에 둔 친환경적인 식물, 생명력이 긴 식물 등을 적절히 조합했느냐도 주요 기준
 - 시민 심사는 인터넷으로 심사에 참여한 시민이 사진당 최소 1점부터 최대 4점까지 부여하면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40%의 심사에 계산되는 방식
 - 피렌체시의 총 다섯 행정 구역에서 시행되며 각 구역의 1위와 2위를 선정하여 총 10명의 수상자를 결정
 - 1위 수상자에게 토스카나주의 원예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40유로(약 34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유료 원예학 강의 100유로(약 14만 원) 할인 쿠폰 지급
 - 2위 수상자에게는 140유로의 상품권과 50유로의 강의 할인 쿠폰 수상

정책 평가와 의의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세 번의 ‘베란다 꾸미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올해 4회를 앞두고 피렌체시는 팬데믹과 관련 없이 매년 개최하려는 의지를 보임
 -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시의 노력에 많은 시민의 호응이 이어지며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평소에 거리감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 도시 환경 이슈를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
 - 환경과 예술, 취미가 접목된 프로젝트라는 점에 시민이 긍정적으로 반응



베란다 꾸미기 대회에서 수상한 피렌체 베란자의 모습(왼쪽이 1위, 오른쪽이 2위)

<https://www.nove.firenze.it/fiori-a-fiorenza-per-i-balconi-in-fiore-piu-belli-di-fiorenza.htm>

<https://www.lamartinelladifiorenza.it/cecilia-del-re-mettete-dei-fiori-sui-vostri-balconi/>

<http://www.societatoscanaorticultura.it/2021/03/concorso-balconi-in-fiore-2021/>

<https://quartieri.comune.fi.it/dalle-redazioni/fiori-fiorenza-edizione-2021>

<https://ambiente.comune.fi.it/dalle-redazioni/fiori-fiorenza-aperte-le-votazioni-della-giuria-popolare-sceglie-re-il-balcone-piu>

<https://ambiente.comune.fi.it/dalle-redazioni/fiori-fiorenza>

<http://www.societatoscanaorticultura.it/2020/03/concorso-balconi-in-fiore-2020/>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물가 부담 완화하고 자선의 의미 되새기는 파웅 라흐마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물가가 상승하자 가게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라마단(Ramadan) 기간에 ‘파웅 라흐마(Payung Rahmah short-term programme)’ 정책 시행

정책 시행 배경

-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생활물가 상승
 -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1년 2.3%, 2022년 3.3%로 상승세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레이시아 물가상승률은 0.66%였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말레이시아 물가상승률을 2.8%~3.8%로 예측
 -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 7% 이상을 기록한 식료품 품목은 쌀, 빵, 시리얼, 육류, 치즈, 우유 등 생계유지와 직접 연관된 식품
- 이슬람에서 성스러운 기간인 라마단
 -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은 금식성월
 -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어지는 라마단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단식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봄
 - 라마단은 해가 지면 가족과 지인,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함께 저녁을 먹고 기부와 자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
 - 라마단이 끝나는 다음 날은 이슬람 최대 명절이자 가장 큰 축제일인 하리라야(Hari Raya)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선과 기부를 권장

파웅 라흐마 단기 프로그램

- 파웅 라흐마 정책
 -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KPDN,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Ministry)는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2023년 1월 31일 파웅 라흐마 발표
 - 파웅 라흐마는 말레이어로 ‘자비의 우산’이라는 뜻으로 생필품, 외식비, 성지 순례 여행비를 지원하는 단기 프로그램
 - 2023년 6월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파웅 라흐마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 정부 보조금 없이 기업,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 파용 라흐마 정책 포함안
 - 생필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주알란 라흐마(Jualan Rahmah)와 생필품을 무료로 기부하는 바쿨 라흐마(Bakul Rahmah) 시행
 - 외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급식비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카페 라흐마(Kafe Rahmah), 5링깃(약 1,400원) 이하의 점심/저녁 식사를 판매하는 메뉴 라흐마(Manu Rahmah) 시행
 - 이슬람 신자의 5대 의무인 성지순례(Haji) 여행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패키지 라흐마(Pakej Rahmah) 시행
- 주알란 라흐마
 - 말레이어로 자비의 상품이라는 뜻으로 테스코, 이온 등 대형마트 체인과 슈퍼마켓은 약 1만 2,000개의 생필품을 49링깃(약 14,000원) 이하에 판매
 - 전국에 2,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99스피드마트는 라마단 기간에 쌀, 식용유, 밀가루 등 생필품을 40% 할인가에 판매
 - 1984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일본 유통 대기업 이온그룹은 3월 6일부터 식용유, 면, 통조림 등 생필품 30개를 10~70% 할인가에 판매
- 바쿨 라흐마
 - 말레이어로 자비의 바구니라는 뜻으로 대형마트 체인·슈퍼마켓과 함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 라마단 첫째 주에 1만 8,000가구에 100링깃(약 28,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
 -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KPDN)는 정책 시행 기간 동안 월 소득 2,500링깃(약 74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환자가 있는 3만 7,000 가구에 100링깃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겠다고 발표
- 카페 라흐마
 - 말레이어로 자비의 카페라는 뜻으로 고등 교육부(Higher Education Ministry)와 협력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제공
 - 2023년 2월 쿠알라룸푸르시 20개 국립학교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학교로 확대할 계획
 - 국립 고등학교와 국립 대학교 학생들에게 아침과 저녁은 최대 50% 할인가 혹은 5링깃(약 1,400원)에 판매하며 점심은 무료로 제공

- 고등 교육부는 카페 라흐마를 제공하는 업체를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KPDN)는 음식 제공 및 유통을 담당
- 파케즈 라흐마
 - 말레이어로 자비의 패키지라는 뜻으로 이슬람 신자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성지 순례(Haji)를 행하는 신자에게 저렴한 순례 여행 패키지 제공
 - 이슬람 신자는 평생 한 번은 이슬람 발상지이자 성지인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례하는 것이 의무
 - 성지 순례 상품의 가격은 최소 5만 링깃이지만 파케즈 라흐마는 1인 4만 3,000링깃에서 4만 5,000링깃에 성지 순례 상품을 판매
- 메뉴 라흐마
 - 말레이어로 자비의 메뉴라는 의미로 전국 1만 5,000개 사업장이 5링깃(약 1,400원) 이하의 점심 또는 저녁을 물과 제공하는 정책
 - 메뉴 라흐마 기준은 없으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제공을 권고



[사진 1] 생필품 지원책 주알란 라흐마
(출처: 필자 직접 촬영)



[사진 2] 파용 라흐마
(출처: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 홈페이지)

<https://tradingeconomics.com/malaysia/inflation-cpi>

<https://www.bharian.com.my/berita/nasional/2023/02/1060871/pasar-roya-catat-kenaikan-jualan-30-peratus-jualan-rahmah>

<https://www.sinarharian.com.my/article/251367/berita/nasional/pakej-rahmah-haji-tawar-harga-bawah-rm5000>

<https://www.thesundaily.my/local/timely-introduction-of-menu-rahmah-initiative-CM10587489>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3/02/883262/budget-2023-anwar-honours-business-owners-payung-rahmah-role-salahuddin>

<https://www.hmetro.com.my/mutakhir/2023/01/924702/jualan-rahmah-tawar-harga-10-hingga-30-peratus-lebih-murah-metrotv>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근린공원 시설 개선

미국 휴스턴시 / 환경·안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는 기업과 협력하여 기존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50/50 파크 파트너스(50/50 Park Partners)’ 프로그램을 추진. 파트너로 선정된 각 기업과 공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특정 공원의 시설 개선을 직접적으로 추진.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자원봉사, 이벤트 개최 등으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배경

- 근린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
 - 근린공원은 시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이웃 간의 결속력을 증진시키며, 홍수 위험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
 - 휴스턴시에는 크고 작은 약 180개의 근린공원이 있음
 - 대부분 시설이 오래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
- 기존 공원 개선 필요하지만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
 - 이에 휴스턴시는 2019년 기업과 민관협력으로 기존 근린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50/50 파크 파트너스’ 프로젝트를 출범

주요 내용

- 50/50 파크 파트너스의 주요 내용
 - 파트너사로 선정된 기업과 공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공원을 활용해 사회적·환경적·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
 - 파트너사는 휴스턴시와 비용을 분담하여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직원 참여와 자원봉사, 시설 개선, 조경 구역 식재, 자연 산책로 조성, 기존 시설 개보수, 이벤트 개최 등으로 근린공원 개선을 지원
 - 휴스턴시, 휴스턴 공원 위원회(Houston Parks Board), 휴스턴 공원 및 레크레이션 부서(Houston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그레이터 휴스턴 파트너십(Greater Houston Partnership)이 협력
 - 다년간 투자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휴스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요시
 - 참여 기업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업 문화 개선, 직원

사기 진작 등의 효과 누리고 기업 전략 실현에 직접적 도움 받을 수도 있음

- 2019년 10월 ‘50/50 파크 파트너스’를 통해 지원할 22개 근린공원 선정
 - 지원 공원 선정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원 부서의 직원들이 공원의 전반적 상태를 평가하고, 각 공원에서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시찰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의 공원이 포함되도록 각 지역의 인구 통계를 고려
 - 초기 파트너는 텍사스 지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H-E-B, 텍사스 지역 부동산 업체인 크라운 캐슬(Crown Castle), 에너지 기업인 셰브론(Chevron)과 발레로(Valero)를 선정
 - 파트너는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근린공원의 관리자가 될 예정
- 2021년 7월 ‘50/50 파크 파트너스’의 첫 번째 지원을 받은 하트만 공원(Hartman Park) 재개장
 - 하트만 공원은 에너지 기업인 발레로(Valero)가 파트너사로 지원
 - 6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지원
 -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지원과 현물 지원
 - 놀이터 구역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 2~5세 및 5~12세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터, 그네, 회전목마 개선
 - 새로운 콘크리트 경계, 경사로, 산책로, 놀이터 표면, 지하 배수구, 벤치, 자전거 거치대 등 설치

정책 평가

- 시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는 윈-윈 정책
 - 시 입장에서는 기존 공원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개선된 공원을 활용할 수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인지도 개선, 기업 문화 개선, 마케팅 효과, 시와 파트너십 구축 등의 이익

<https://houstontx.gov/mayor/press/public-private-park-improvements.html>

<https://cityofhouston.news/mayor-turner-and-50-50-park-partners-celebrate-new-playground-at-hartman-park/>

<https://houstonparksboard.org/5050-park-partners/>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

지하는 하수처리장, 지상은 공원 건설

중국 충칭시 / 환경·안전

충칭시 최초의 지하 하수처리장인 사텐하수처리프로젝트 1기 공정이 2024년 5월 완공 앞두고 시운전 개시. 사텐하수처리프로젝트 1기 공정은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 이와 관련하여 충칭시는 새로 시내에 건설하는 모든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기로 결정. 건설 비용은 대폭 증가하지만 환경산업을 육성·발전시킬 기회로 활용 계획

시운전 들어간 충칭시 최초의 지하 하수처리장

- 2월 27일 충칭시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지하 하수처리장인 사핑바(沙坪壩)구의 사텐(沙田)하수처리프로젝트 1기 공정이 완공 앞두고 시운전 개시
 - 사텐하수처리프로젝트 1기 공정은 주변 47.2km² 거주지역의 생활 하수와 공업 폐수 10만 입방미터(Cubic Meter=CBM)를 날마다 처리하기 위해 사업 진행
 - 중국 서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2021년 5월 시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5월 완공 예정
 - 지하의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후 시운전 과정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낼 계획
 - 현재 지상에는 8만m² 규모 공원과 농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 건설 중
 - 체육시설은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무료 개방 예정



[그림] 공원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사텐하수처리장의 지상 계획도

(출처: 충칭일보)

앞으로 충칭시의 하수처리장은 지하 건설 계획

- 충칭시 정부는 앞으로 관할 내 각 구(區)가 자체적으로 생활 하수와 공업 폐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내 모든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할 계획
 - 현재 충칭시의 적지 않은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되어 악취가 심각한 상황
 -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충칭시 정부는 앞으로 시내의 모든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기로 결정
 -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중국 최초의 하천 보호법 ‘장강보호법(長江保護法)’에 따라 장강 류류에 위치한 충칭시는 생활 하수와 공업 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 안전하게 장강으로 배출해야 하는 입장(장강보호법은 세계도시동향 517호 참조)
 - 장강은 양쯔강의 중국식 명칭으로, 길이가 6,300km에 이르는 세계 3위이자 중국 1위인 하천.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강(母親河)’이라 불림
 - 충칭시뿐 아니라 중국 주요 대도시는 님비(NIMBY)현상¹⁾으로 지상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쉽지 않아 지하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 지난 수년 동안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연해지방의 대도시들은 잇달아 지하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임
- 지하 하수처리장 보편화로 건설 비용 대폭 증가하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산업을 육성·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함
 - 충칭시는 2021~2025년 제14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환경산업을 미래 10대 먹거리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 중
 - 사텐하수처리장은 후베이(湖北)성 우한시에 본사를 둔 중국건설 제3공정국유한회사(中建三局)의 충칭시 자회사가 건설 중인데, 충칭대학과 산학 협동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거쳐서 사업 진행
 - 따라서 사텐하수처리장 건설에 조달되는 대부분의 핵심 시설은 충칭시 환경산업 업체들이 제조하여 공급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064318282104834>

<https://baijiahao.baidu.com/s?id=1756810467472766914>

<https://baijiahao.baidu.com/s?id=1756704803157291448>

<https://baijiahao.baidu.com/s?id=1740311440801611553>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1) 님비현상에서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주민이 환경오염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시설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사회 추세를 가리킴

‘델리 2047’ 도시계획 관련 프로젝트 진행

인도 델리 NCT¹⁾ / 도시계획·주택

델리 NCT 정부는 도시 장기 비전인 ‘델리 2047’ 전략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음. 지속 성장을 목표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며 민간 분야 주도로 지역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진행

정책적 배경

- 델리 NCT 정부는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델리 NCT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장기적 과제가 필요함을 인식
 - 2048년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인프라 중심의 단계별 성장에 대한 요구 존재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독립 75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 현대화 과정에서 공정하고 (Equitable) 지속적(Sustainable) 성장을 목적으로 ‘델리 2047’ 전략을 발표하였고 관련 사업을 2022-2023년 예산안에 반영
- ‘델리 2047’ 전략 기본계획 이행과 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한편, 델리 소통개발위원회(Dialogue and Development Commission)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 대상 온라인 창구를 운영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이를 국가 예산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행 프로젝트 선정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판단 기준. 민간 분야와 상시 소통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델리 2047’ 전략을 반영하여 2021-2022년도 예산안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공립학교 진료 클리닉 설치, 약물중독 청소년 재활 서비스,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가 인도의 수도

사례 1: 보행자 중심의 도로 재조성 사업

- 델리 NCT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다른 대도시 대비 높은 수준인 하루 5명 수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 발생 상위 지역 20곳을 재조성하는 작업 진행
 - 도로 공간을 재설계하여 보행자 안전거리를 늘리거나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 신호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
-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와 협업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에서의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도로 전반을 재설계하고 변경하는 작업 중
 - NGO 단체인 세이브라이프 파운데이션(SaveLife Foundation)과 샤와임(Swamyam)²⁾의 자문하에 사고 발생이 잦았던 라지가트(Rajghat) 교차로의 차량 진입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제로 개편

사례 2: 케로 델리(Khelo Delhi)³⁾

- 델리 NCT 정부는 2048년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립학교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시설을 건설하고 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우수체육 인재들은 별도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
- 델리 NCT 정부 주도하에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민간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후원을 바탕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중

사례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NGO 단체인 산가뜨(Sangath)⁴⁾와 협력하여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산가뜨는 상담 사례별로 전문 담당자를 배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 해당 아동·청소년을 전문기관으로 연계
- 장기적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치료사와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 연계를 확대하는 형태로 정신건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2) 샤와임은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

3) 케로 델리는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운동하는 델리'라는 의미

4) 산가뜨는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협동'을 의미

시사점

- 지역 주민 편의 확대와 도시 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델리 2047’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공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
- 특히 민간 분야와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인프라 활성화 목적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거나 아이디어 제시를 통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공공 주도 지역 정책 공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함



[그림] ‘델리 2047’ 웹사이트 모습 (출처: 델리 NCT 정부)

<https://ddc.delhi.gov.in/delhi-2047>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kejriwal-launches-delhi-2047-to-make-delhi-world-class-city-121080301310_1.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cm-kejriwal-launches-initiative-to-make-delhi-global-city-by-2047-101627978410462.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s-raighat-road-redesigned-to-make-it-safer-for-pedestrians-101637693815114.html>

<https://www.ndtv.com/india-news/arvind-kejriwal-launches-initiative-to-make-delhi-a-global-city-by-2047-2501571>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47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3월 2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